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11.07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FCCC, COP23 개최 - 일시/장소: '17.11.6-17 / 독일 본 - 주요의제: 조직적 사항, 부속기구의 보고, 파리협약 개정조항에 따른 당사국의 제 안 검토, 적응위원회의 보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손해에 대한 Warsaw국제 메커니즘, 기술/재정 메커니즘 관련 이행사항 및 젠더이슈 등 <p style="text-align: right;">(UNFCCC, 10/16)</p>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기관 총 383개 ('17.11.7 현재) - 2개 기관* 가입승인 *캐나다(1), 스페인(1)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회원기관 총 46개 ('17.10.16 현재) - (주)해강기술, APEC 기후센터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E 총 158개 ('17.10.16 현재) -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102개 수처리 기술」 책자 발간 - 발행기관: UNE-DHI Center, UNEP-DTU 파트너십 - 주요내용: 6개 부문*의 수자원 적응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내용 소개 및 검토 * 기후위험 및 불확실성, 가뭄, 홍수, 수질오염, 해수면 상승, 재해 대비 <p style="text-align: right;">(CTCN, 11/3) (보고서, 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CN 사무국, COP 23 부대행사 개최 - (11/7, 18:00-19:30) 개도국의 우선 기후기술을 위한 국제 자원 접근 지원 방

		<p>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8, 18:30-20:00)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기술 메커니즘 - (11/9, 09:30-10:30) 도서국의 기후기술 매칭 - (11/10, 8:00-19:00)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기술 매칭 - (11/13, 09:00-09:30) CTCN의 기후기술 이전 대담 - (11/13 15:00-17:00) 내생적 기술 및 자연자본(범분야 적응역량) - (11/13 16:34-18:15) 성평등 기후 솔루션 시상식 - (11/14, TBC)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기술 이전 및 혁신 - (11/15, 09:00-17:00) 기후변화의 성주류화 사례 공유 <p style="text-align: right;">(CTCN, 11/3)</p>
GCF	본부	<p>○ 한국 GCF 추가 이행기구 배출, 내년 기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작년 산업은행이 국내 최초 GCF 이행기구로 인증받는데 이어, 올해도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추가 이행기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승인여부 결정이 내년 2월 이사회로 지연됨 - 정부는 내년 GCF 이사국자리에 도전할 계획이며, 국내 기업 및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밝힘 <p style="text-align: right;">(전자신문, 10/11)</p>
		<p>○ ADB-GCF, 중국의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 1조 6천억원 규모 펀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펀드는 ADB에서 약 5억 달러, GCF에서 약 3억~5억 달러를 지원받아 출범할 예정으로, 독일 정부 산하 투자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도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이 펀드는 중국에서 산업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후원할 계획 <p style="text-align: right;">(에너지경제, 11/7)</p>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서울시	<p>○ 시티넷 콜럼보 총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간 협력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6일 오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시티넷 8차 총회가

		<p>‘우리의 도시, 우리의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공유’라는 주제 하에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아태지역 도시 시장, 공무원 및 GGI 등이 참석 - 서울시 도시문제해결 노하우와 정책 사례 공유 <p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 11/6)</p>
	<p>외교부</p>	<p>○ 외교부, ‘2030 지속가능 한-카리브 전문가포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8일 서울에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차 전문가 포럼 개최 - 지난 2월 자메이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카리콤 고위급 회의’에서 양측은 카리브 지역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포럼은 동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마련 - 포럼을 통해 카리브 지역의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이 양 지역 전문가들간 공유되고 호혜적 협력방안들이 다양하게 도출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카리브 지역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p style="text-align: right;">(국제뉴스, 11/6)</p>
	<p>기술보증기금</p>	<p>○ 기보, 기후기술과 기술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보는 본 포럼을 통해 자체 보유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온 사례를 공유 - 특히, WIPO 사무처장보는 지난 3년간 기보와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중소기업 보유 기후기술의 개도국 기술이전 중개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사업 확대와 발전적 교류 증대를 위한 협력강화를 강조 - 기보와 유럽투자은행은 ‘혁신기업 지원 및 평가관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유럽 선진국 기업의 기술평가 업무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를 구축했으며,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와의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 중소기업의 개도국 기술 이전 및 현지 사업참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 <p style="text-align: right;">(부산일보, 11/1) (매일일보, 11/3)</p>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 일반	<p>○ 한국의 '기후기술', 개도국으로의 진출가능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와 녹색기술센터가 주관한 '기후기술대전' 글로벌 협력 부문 행사의 일환으로 15개국의 개도국 공무원들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후기술 시제품 전시를 관람하고, 관심있는 국내 기후기술의 관계자와 1:1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p style="text-align: right;">(헤럴드경제, 11/3)</p>
		<p>○ 북한, '탄소배출권판매' 추진전략에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달 초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3호(철학·경제학 분야)에는 '온실효과가스 방출권 거래의 특성에 맞는 탄소무역의 확대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 - 북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실제로 수력발전소 건설로 생기는 탄소배출권을 체코 회사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는 등 투자 유치전략으로서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 10/22)</p>
		<p>○ 에코시안, 국내최초 '탄소배출권 시장정보 및 장외거래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CM·PM) 회사 한미글로벌의 자회사인 에코시안(ecosian)은 탄소배출권 종합 플랫폼을 선보이고, 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분석, 금융공학에 기반한 대응전략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기업 간 탄소배출권 장외거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기업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시장 분석 정보를 얻고 비용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small>*장외거래: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배출권이 남을시 시장에 매도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매수해 제출하거나 부족분만큼 과징금을 내야한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거래(장내거래)하거나 할당 대상업체간 개별적으로 거래(장외거래)할 수 있다.</small></p> <p style="text-align: right;">(데일리안, 11/2) (파이낸셜뉴스, 11/1)</p>
국외	독일	<p>○ 독일, 석탄사용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에서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막을 앞둔 지난 4일 오후다수의 독일 시민이 독일의 석탄 사용에 강력하게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反) 석탄 행진 참가자들은 독일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비판* - 시위대는 기후변화회의 COP23가 유럽의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인 쾰른 근처의 대형 광산과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열리고 있다며, 이를 꼬집음 <p>* 유럽 연합 CO2 배출량의 20% 가량이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이 독일과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음. 독일은 탈 석탄화 노력에도 여전히 77개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규모</p> <p style="text-align: right;">(그린포스트코리아, 11/6)</p>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개 EU국중 26개 EU국 Utility Company에서 2020년부터 석탄화력 투자 하지 않기로 합의 - 이탈리아 정부는 10월 24일 새정부의 전력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력공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 - 이로써 28개의 EU가입국중 그리스와 폴란드를 제외한 26개국은 2020년부터 석탄화력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전폭 확대할 계획을 밝힘 <p style="text-align: right;">(EURACTIVE, 10/26)</p>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업계, EU에 더 높은 기후변화 목표 '압박' -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이탈리아 에넬, 영국의 SSE 등은 독일 본에서 이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는 2030년까지 EU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목표치를 7%에서 35%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효율성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목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함 - 이같은 전력회사들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가 증가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p style="text-align: right;">(파이낸셜뉴스, 11/6)</p>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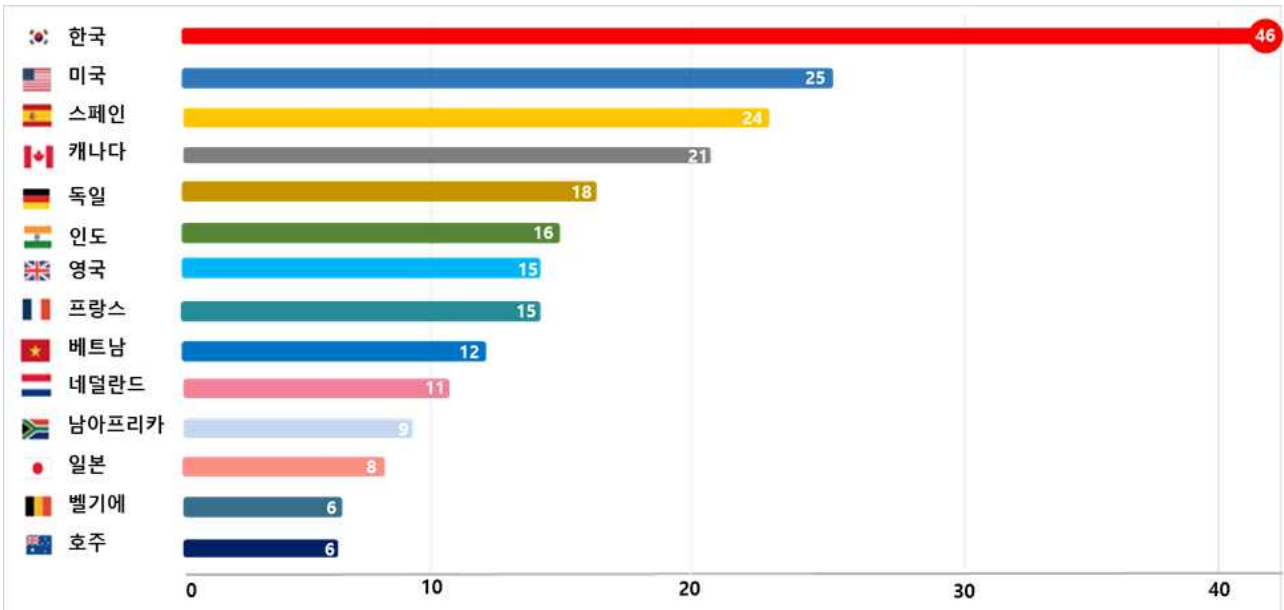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11.3.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68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7.11.7.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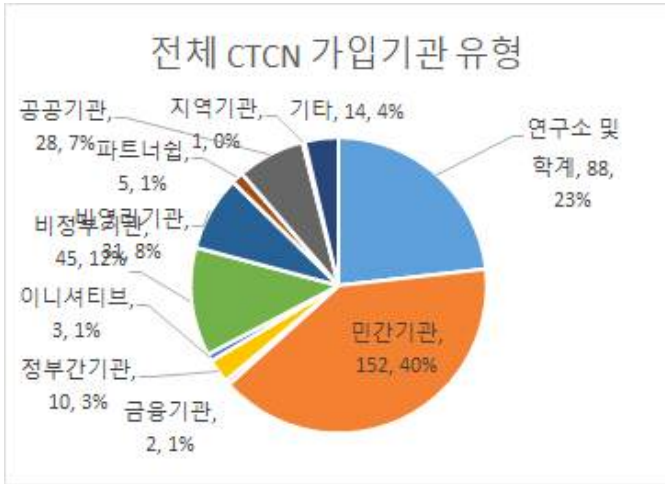
- 총 383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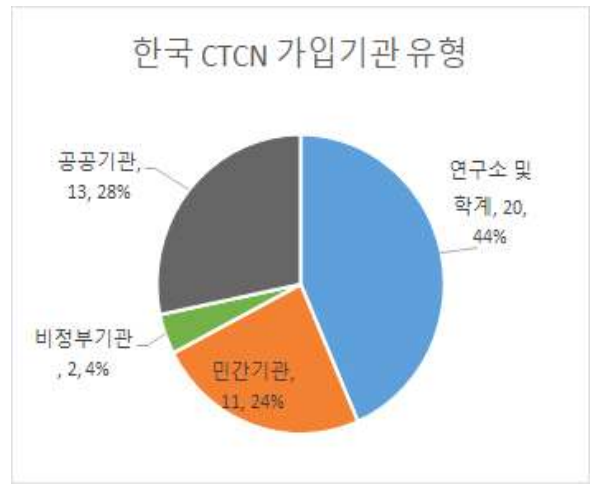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11.7. 현재)



<CTCN 전체 383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6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383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43건으로 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78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0건(12%), 29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6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44%)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28%)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11.7. 현재)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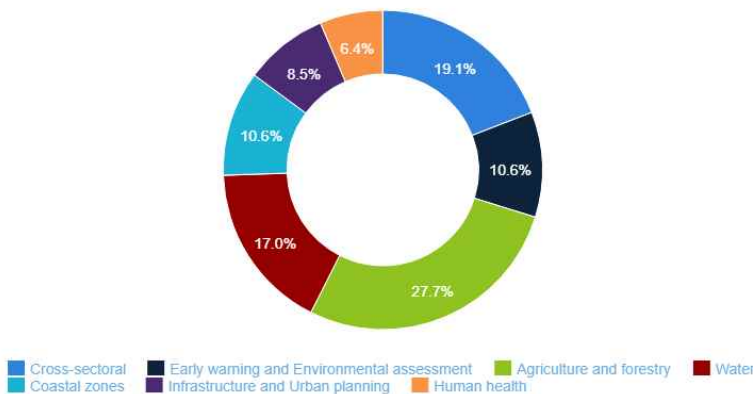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11.03 현재)

- 제출된 TA : 196개
- Active TA : 108개 (감축관련 TA-44.7%, 적응관련 TA-29.3%)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